

바른 말과 글을 위하여



이사장 김 윤 찬

우선 19호 '인성'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학생들이 꾸며내는 교지를 볼 때마다 남모르는 감회가 있어 몇 마디 풀어내는 것으로 축하를 대신할까 합니다.

'말'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人間이라는 말(개념)자체가 갖고 있는 뜻을 살펴볼작시면 '말'의 의미가 새록새록 돋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人間. 사람 사이. 즉 사람은 여럿이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 때 진정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도 있지요. 이런 얘기를 왜 하시고 하니 동물이든 인간이든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무척 세련되고 잘 짜여진 의사소통 수단-말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말의 소중함 또는 그 역할을 잊고 삽니다. 여러분은 문명의 발생이 말(언어)의 발생과 함께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문자언어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성언어에 선사시대의 인간생활이 뚜렷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접할 때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님에게" 할 때 그 '님'이라는 말 속에서 수천 년 전의 인간생활을 엿볼 수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어원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 '님'이라는 말은 원시시대 숭배 대상의 하나였던 태양신을 의미하는 말 '니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니마'라는 말은 王을 의미하는 말 '임금'의 어원이기도 한데 '니마'라는 말과 地母神(지모신) 또는 곰(熊)신을 의미하는 '고마'라는 말의 합성어가 바로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님에게'라고 할 때 그 '님'은 바로 지존(至尊)(?)을 의미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다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데, 태양신을 일컫던 말이 地上의 帝王을 부르는 말이 되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 또는 친구에게 쓰는 말이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말의 민주화, 우리는 말의 변천에서도 역사의 진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말에는 그 시대의 삶이 담긴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이렇듯 말이 시대상을 반영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 남아있는 흔적에서 그 시대의 문제점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돌프 히틀러’와 독일 국민이 남긴 역사의 오점을 잘 아시지요. ‘제국의 영광’과 ‘아리안족의 순수’라는 기치 아래 그들이 저지는 만행은 어떠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순수’와 ‘영광’이라는 말에 주목합시다. 이 말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말은 지혜의 샘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고 독수(毒水)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끝없이 두려워집니다. 내가 쓰는 말은 과연 어떠할까? 이런 고민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입 꼭 다물고 침묵을 고수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땐 모든 것의 주장은 결국 지배욕에 기반한다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논리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의사의 칼은 생명의 칼이지만 강도의 칼은 죽음의 칼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생명의 말일까요? 죽음의 말일까요?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쓰는 말에는 어떤 흔적이 남을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TV, 신문, 잡지, 영화 등 온갖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말을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우리 뒤에 오는 후손들이 우리가 쓰는 말을 통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들여다 볼까요? 당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눈에도 우리말이 부끄럽게 보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요즘은 예술가들도 공공연하게 팔리기를 원합니다. 잘 팔린다는 작품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진리를 추구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은 경우보다 일단은 팔려야 한다는 속물적인 상업주의를 뻔뻔하게 드러낸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마무리할 때가 된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꼭 필요하고 절실한 말만을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를 현혹하는 말들에 맞서 참다운 우리의 말을 갈고 닦으려는 노력을 아예 포기한 건 아닙니까?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말이 생각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말은 인간존재의 필수조건입니다. 아니 그 전부입니다. 19호 ‘인성’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